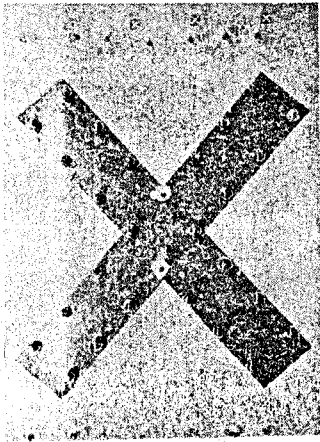


## 優秀食品의 公認性



全 奉 子  
梨大Y會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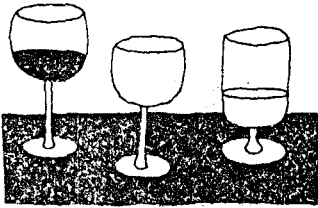
優良·不良食品의 比較란 消費者가 直接 試食한 後 輿論綜合分析 結果 “좋다”, “나쁘다”라고 評價 받는 것이 아니라 商品 그 自体의 生産過程에서 法 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完全한 商品이 되었느냐 아 니었느냐에 따라 優良과 不良의 商品으로 결정되어 지는 것으로 안다. 勿論, 完全한 人間이 없듯이 完 全한 食品도 또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不良·優良商品展示會가 가끔 開催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消費者의 계몽을 爲해서는 좋은 展示會라 느껴진다.

그러나, 계몽을 爲한 展示會라 하더라도 “不良”이 란 두 글자로 因해서 어딘지 모르게 개운치가 않다.

하구많은 業種가운데 그것도 꼭 食品을 골라서 不正·不良食品을 만들어야 하는 不正製造 業者의 良心을 다시한번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다른 業種에는 不良品을 만들어도 좋다는 예기는 아 니다. 오죽이나 不正不良食品이 많으면 그것을 比較 展示까지해야 하는지 消費者 以前의 國民의 한 사 람으로써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各메이카에서 生産되는 商品들이 모두 優良品이 기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피한 販促의 一環으로 이



루위지는 優良商品의 展示會라면 그 얼마나 믿음직하고 자랑스러운 展示會라 아니하겠는가?

食品은 무엇보다도 人体와 直結되므로 行政當局은 철저한 監督과 支援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夏節을 마지하여 各種 不正不良食品이 氾濫할 이 時期에 消費者와 製造業者와 官當局의 三位一體로써 不正食品製造業者를 철저히 적발하여 우리 保健秩序를 문란케 하는 害虫은 하루속히 根絶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問題되는 것은 소위 우량식품 제조업자의 企業精神이라고 하겠다.

앞서도 言及했으나 食品製造業者는 國民食生活의 길잡이로써 보다 營養있고 衛生的이고 低廉한 價格으로 奉仕하는 企業의 姿勢가 무엇보다도 重要하다고 보겠다.

過去 우리의 食品業界는 消費者에게 不信을 받으며 成長해 왔다. 이 點은 弱少國家로써는 어느나라이던 겪어야 하는 苦難일 것이다. 그렇다고 消費者는 무조건 製造業者를 不信만하는 것은 아니다. 消費者는 不滿을 참고 견뎌 나아가야 할 것이다. 自身만을 爲해 外製를 愛用하는 習性은 國家百年大計의 견지에서 그는 곧, 癌的인 存在의 價値밖에 없다고 보겠다. 그래서 “消費者는 王”이라는 파워도 있으나 “消費者는 生産者의 길잡이”라는 莫重한 義務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모두 인식하고 서로 믿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福祉社會를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물건을 살때, 종전 나쁘건 “이거 가짜야 니요?”하고 일단은 그 製品을 의심해 보는 습성이 6.25事變을 겪은 이후 國民의 사생활에 좋지 못한 습관의 씨가 싹이 텃다고 보겠다. 물건이 비싸면 비쌀수록 “진짜냐” “가짜냐”하는 의심은 더 해 가니 이는 어느 特定人의 잘못이 아니라 國民 모두가 빨리 일깨워야 될 社會的인 숙제가 아닌가 싶다.

中進國을 向해 힘차게 내 던지고 있는 “새마을 운동”이 國民精神을 일깨우는 活力素이듯, 지금까지 不正食品을 製造하던者나 또한 營利만을 위해 눈가리고 아웅하며 장사하던 企業人은 이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피흘리며 노력하여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既存 有名業體는 보다 새로운 產品의 개발에 연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消費者는 우량식품을 생산하도록 企業을 育成시켜야 할 것이다.

生産者는 우량식품을 製造生産토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며 消費者는 이를 잘 育成시켜 明朗한 福祉社會를 이룩토록 하여야 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우량·불량품 비교전시회등 이런 전시회가 아니라 우리의 생산품과 외국의 최우수 생산품과의 비교 전시회가 속히 개막되도록 온 국민은 一致團結해야 되겠다.

앞으로 닥칠 夏節을 마지하여 아이스크림類나 冰菓類, 清涼飲料類의 各種 不正食品이 이제는 완전히 근절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우수식품의 공인은 消費者만이 인정할 때가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인정할때, 비로소 우수식품이 될 것이다. 한동안 KS마크나 SF마크가 소비자에게 인정을 받도록 정부당국에서 노력했으니 이 역시 용두사미격으로 되고 마는 것 같다.

이런 모든 점이 시련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이니 만큼 이를 극복하여야 하겠다.

다시는 부정이란 낱말이 메스컴을 통해 떠돌지 않도록 우리 모두 舍心하여 보다 밝은 來日을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